

## \*\*한국 근대은행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ior Space Arrangements of the Modern Bank Buildings of Korea

오인욱\* / Oh, In-Wook

#### Abstract

The material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are being collected and organized in a systemic fashion.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ith the materials relative to interior design. They are gradually disappearing or being lost. In particular, no serious attempt has yet been made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 value of the interior design of the modern bank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disappearing legacy of the interior design of modern bank buildings by learning the inner space arrangements of these building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interior design in order to determine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modern commercial interior design.

Banks of relatively large scale were selec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y consisted of: Chosun Bank(1911) and its Andong, Wonsan and Cheongjin branches; Chosun Shiksan Banks and its Busan, Daegu and Pyongyang branches; the Busan branch of the 18 Bank; Dongil Bank, Chosun Savings Bank(1935) and their branches. The study focused on the space arrangements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se banks.

Although they aimed at modernization in designing their interior spaces, the modern bank buildings were not representative of any particular style of interior design. While western style designs were prevalent, eclectic designs incorporating many different styles exi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ior design of banks of the time included installation of such decorations and use of high quality construction materials for interior and exterior expressing the wealth as to create an aura of credibility for the banks, while the floor arrangements were relatively stereotyped and simplified.

**키워드** : 근대 실내건축, 근대은행, 실내디자인 표현성, 실내디자인사

**Keywords** : Modern interior architecture, Modern Bank, Interior design expression, History of interior design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금융체계가 최초로 도입된 19세기말은 근대적인 은행건축이 출연한 시기이며 민족자본에 의한 은행들과 다양한 목적의 근대적인 은행들이 설립되고 그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은행의 실내 공간구성은 현재의 은행 실내 공간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근대 은행건축에 대한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실내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정리가 미흡한 채 자료들은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다. 특히 근대은행 실내공간의 특성과 디자인 역사적 가치를 발견

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워져 가는 근대 은행건축의 실내디자인 흔적을 찾아 당시의 실내 공간구성과 근대 실내디자인 특성을 파악하여 근대 상업 실내건축의 사적의미를 발견하는데 있다.

이러한 실내공간의 사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과 함께 시대적 흐름을 찾아보면 한국 실내디자인의 여명기를 되돌아보는 충분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점점 소멸되어가는 근대 은행건축의 실내공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내디자인의 각론적인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근대 실내디자인사의 단서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대 은행건축의 실내공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 논문은 경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대 은행건축 실내공간의 영업장 배치와 계획적 측면의 연구 및 실내디자인을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근대적 은행건축이 출현되던 일제 식민지기를 근간으로 비교적 실내공간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근대 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은행은 조선은행(1911년), 조선은행 안동현·원산·청진지점, 조선식산은행(1928년), 조선식산은행 부산·대구·평양지점과 제18은행 부산지점, 동일은행, 조선저축은행(1935년)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은행들과 각기 지점들을 중심으로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1차적으로 관련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을 통해서, 2차적으로는 현존한 은행의 유구를 찾아 정리하고 「실측 조사 보고서」를 통해 실내디자인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연구하였다.

## 2. 근대은행의 생성과 실내공간의 배경적 고찰

1876년 개항이후는 수출입무역의 급성장으로 자본주의 경제 부문이 확대,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전통 금융업과는 상이한 형태의 근대적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요구받게 된다. 1876년 2월 일본과의 조약은 관세주권을 상실하고 화폐주권을 침해당하며 사법주권이 훼손된 불평등 조약이었다.<sup>1)</sup>

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선에 진출한 은행은 주로 일본계 은행들이었다. 이 은행을 중심으로 근대 은행들의 생성과 실내공간의 배경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2.1. 근대은행의 생성과 변천과정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일본의 상품과 상인들이 개항과 더불어 조선에 진출함으로써 1878년에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근대적 금융기관으로 알려진 일본 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이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여 침략의 야욕과 함께 일본계 은행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근대적 금융기관의 효시가 되었고, 이러한 외국에서 도입된 근대적 은행에 자극을 받아 조선인들도 은행설립운동을 벌여 갑오개혁이후에 한국의 근대적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은행은 1896년 6월에 창립된 대조선은행이며, 이 은행은 1900년에 한흥은행으로 개칭되었다. 1897년 2월에는 한성은행, 1899년 1월에는 대한천일은행이 각각 창설되었다.<sup>2)</sup> 그 후 1906년 3월 은행조례가 발표된 직후 8월에 한일은행이 창립되었다. 이렇게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조선상업은행), 한일은행의 3대 민족계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일인(日人)들은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을 조선상업은행으로, 한일은행(韓一銀行)을 동일은행(同一銀行)으로, 1909년에 창립된 한국은행을 1911년에 조선은행으로 개칭하였다. 이상의 민족계 3대 금융기관들은 수차에 걸친 합병 및 조직변경을 거쳐 조흥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06년에는 각 도(道)에 농공은행이 설립되고 1918년에는 각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된다.<sup>3)</sup> 일인계 은행인 제18은행(第十八銀行)은 인천지점(1830년)을 설립하여 장기(長岐)지역 상인의 무역활동을 지원하면서 활발한 영업을 하였으며 조선식산은행에 합병되었다. 제58은행은 오사카(大阪)에 본점이 있었던 은행으로 1892년 인천지점을 개설하였고 1923년에 안전은행(安全銀行)으로 다시 합병되었다.<sup>4)</sup> 일인계 은행은 1910년부터 1945년간에 은행계획의 표준화를 이루었던 시기로 짐작되며 이로 인해 이 시기의 은행 실내계획에 중요한 공간구성 요소인 영업장과 객장의 배치가 정형화됨을 알 수 있다.

### 2.2. 근대은행 실내공간 구성의 정형화

일제 강점기 은행건축은 조선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사한 평면 유형이 나타난다. 이는 근대적인 경제활동이 본격화되고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은행건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표준화된 도면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건축가의 독창적인 계획안 보다는 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조직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 기계적인 복사에 의해 일부 수정되어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1920년대 말 이후는 개항조치부터 진행된 은행건축 평면유형이 정착되는 시기이다.<sup>5)</sup>

이 시기의 정형화된 은행 실내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객장과 영업장의 배치는 주로 객장과 영업장을 구분하는 카운터 형식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는 분업방식에 의한 라인결제제도를 운영하였으므로 창구직원의 관리목적으로 후방결제조직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전산화와 고객 편의시설 증가로 객장면적이 영업장 면적보다 넓은 오늘날의 은행과는 달리 당시의 은행은 영업장 면적이 객장면적보다 월등히 넓었다.<sup>6)</sup> 순수영업장 면적의 2/3를 영업장 면적으로 할애하고, 객장은 1/3정도의 비율로 배분된 배치계획으로 오시오(牛屋美佑雄)는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기고한 「銀行建築の計劃に就て」에서 영업장과 객장의 배치를 정리하고 있다. <그림 1>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6가지 형태의 배치에서 중소형 지점은행에서는 一자형과 ㄴ

3) 本田秀夫, 朝鮮殖産銀行20年誌, 1938,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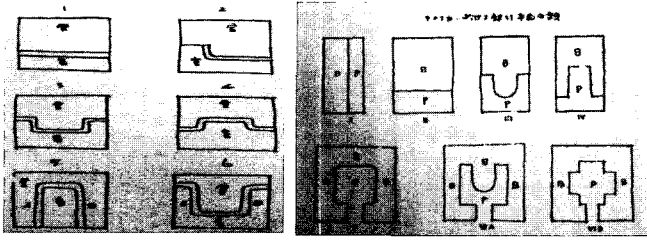
4) 박대준·주남철, 우리나라 은행건축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2호(통권160호), 2002, p.90

5)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서 양식변화, 연대박논, 1999, p.88

6) 박대준·주남철, 우리나라 은행건축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2호(통권160호), 2002, p.195

1) 이영훈의 4인, 한국의 은행 100년사, 도서출판 산하, 2004, p.72

2) 장기돈, 식민지조선에서 근대적 금융기관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박논, 1997, p.107



<그림 1> 은행 배치 개념도(출처:朝鮮と建築)

자형 카운터가 주로 사용되었고,凹凸형 카운터나 S자형 카운터는 하이카운터를 사용하는 경우 1.4m-1.5m<sup>7)</sup> 높이가 일반적이고 현금 출납부분에는 스크린(철창)을 이용하여 도난방지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정형화된 은행 실내공간 구성에서 대부분 영업장의 후면에는 금고와 지배인실을 대칭적으로 위치하게 되고, 객장과 인접한 곳에 접대실(接待室)을 두고 1층의 공간구성은 영업장, 객장, 금고, 접대실로 구성되고 2층에 용지실(用紙室), 서고, 예비실, 회의실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형창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취하도록 하고 내부가 깊을 경우에는 천창을 이용하는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정형화된 은행계획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큰 변화없이 대부분의 은행 공간구성에 적용되어졌다.

### 3. 근대은행의 실내공간 사례

우리나라의 근대적 금융시설의 효시인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제18은행 부산지점, 한국건축가 박길용에 의해 처음 설계된 동일은행 남대문지점, 현재까지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조선저축은행 등의 사례들을 관련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을 통하여 우리나라 근대 금융기관의 실내공간 구성의 맥을 알아보고, 실내 공간구성과 표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제일은행 부산·인천지점

제일은행은 1878년에 설립된 근대적인 은행으로서 1910년까지 식민통치를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은행이었다. 제일은행은 부산, 인천, 경성 외에 평양, 대구, 목포, 군산, 마산, 성진, 개성, 함흥, 마산 등 전국적인 지점망을 두었다.



<그림 2> 제일은행 부산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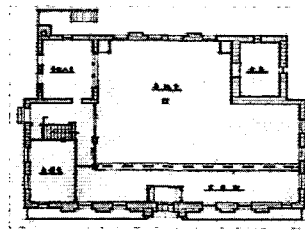


<그림 3> 제일은행 인천지점

1909년 통감부에 의하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자 모든 업무를 한국은행에 인계하고 부산과 경성의 2개 지점만을 남긴 채 모든 지점을 1910년에 폐쇄하였다.<sup>8)</sup>

이러한 지점은행들은 지배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지향적인 설계로 은행설계의 초기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은행 부산지점은 시미즈건설(清水建設)이 시공하였고 인천지점은 1897년 8월 착공하여 1899년에 준공되었으며, 1911년에는 조선은행 인천지점으로 변경되어 해방이후까지 사용되었다. 설계는 나이노미 다카마사(新家孝正)가 했으며 이후에 1930년에 건물의 우측면에 사무실을 증축하였다.<sup>9)</sup> 해방이후에는 조달청 인천지점으로 사용되다가 1996년까지 법원등기소, 현재는 사)인천문화발전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다.<sup>10)</sup>

#### (1) 공간구성



<그림 4> 제일은행 부산지점 평면

제일은행 부산지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중앙에 주출입구와 측면에 부출입구를 두어 고객과 행원의 동선을 분리하였고 응접실을 영업장과 객장의 공용 공간에 두어 행원이나 고객의 접근이 쉽고 상담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영업장과 객장은 일자형(一字型) 카운터로 구획하여 후면에 금고와 지배인실이 대칭적으로 위치하고, 고객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금고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은행설계의 초기 계획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제일은행 인천지점은 1930년대 우측으로 사무실을 증축하게 되어 출입구가 후면에 위치하게 되고 주출입구를 통하여 3개의 원형기둥이 설치되어 이곳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객장과 영업장을 구분하였다.<sup>11)</sup> 그러나 당시의 실내가 표현된 도면이 없고 현재 빈공간으로 실내 공간구성의 흔적을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실내공간의 형태를 보아 지점장실은 좌측에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건물의 공간구성 전체에 대형창과 천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내의 채광을 중시한 당시의 계획방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2) 실내디자인

제일은행 부산·인천지점은 건립 시기가 비슷하여 외관이 르네상스식 건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던 수직기둥으로 대칭성과 장식성을 표현하여 은행의 신뢰와 부(富)를 표현하고 있다.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절충주의적 표현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보수설계이전 현황<sup>12)</sup>을

8) 박대준·주남철, 전계서, 2002, p.166

9) 박대준·주남철, 상계서, 2002, p.167

10) 이안, (구)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복원공사를 통해서 본 근대건축 보존의 문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2001. 5

11) 박대준·주남철, 전계서, 2002, p.167

7)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제3집3호, p.6



<그림 5> 제일은행 인천지점 영업장

살펴보면 내벽은 기존 회벽마감으로 되어 있고, 보수직전에 암면텍스마감의 천정 마감재를 철거하여 약50여년(추정)만에 처음으로 그 형체가 드러난 중앙홀 부분의 상부벽면은 백색 회벽마감으로 장식적 아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적이다. 홀 전면부에 있는 기둥은 외견상은 원통형이지만 내부가 주철로된 기둥으로 상부는 나무 원통을 감싸고 있으며 바닥에서 910mm까지의 하단부는 철사와 석고를 바른 뒤에 모자이크 타일위에 회색 페인트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다. 기둥은 주두와 기둥부로 나뉘어 기둥의 크기는 하부가 420 $\phi$ , 상부는 280 $\phi$ 로 되어 있다. 중앙홀의 천장형태는 상부가 오픈된 부분과 홀 주변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주변부의 형태는 쪽널이기로 마름모 모양 형태 또는 일정방향으로 구성된 패턴을 볼 수가 있다.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로 황동줄눈과 바닥표면의 부분된 파손을 보면 걸레받이까지 인조석 물갈기를 주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조선은행(朝鮮銀行)



<그림 6> 조선은행(한국은행)

조선은행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한 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조선은행의 건축과정은 처음에는 일본 제일은행(日本第一銀行) 경성 총지점 건축이란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조선의 중앙은행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공사과정 중에 조선은행건축으로 개칭되었다.<sup>13)</sup> 조선은행 건축은 타쓰노 킨고(辰野金吾)<sup>14)</sup>에 의해 설계되어 1907년 11월에 착공하여 1912년 1월에 조선은행으로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방이후 한국은행의 발족으로 중앙은행본점 건축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1950년 한국전쟁중에 피폭으로 내부가 전소되었다. 1956년 9월부터 1958년 1월까지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되었다. 그 후 2001년에 90년간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신축한 한국은행신관 건축물에 넘겨주고 「화폐금융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5)</sup> 이 화폐금융박물관 계획으로 내부공간 구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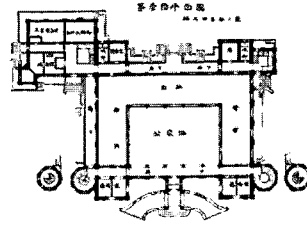
12)이안, 전계서, 2001. 5

13)丁碩炫, 조선은행건축의 내외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논, 2005,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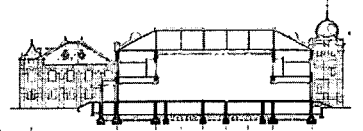
14)타쓰노킨고(辰野金吾)는 일본제국대학 조가학과 교수로 동경은행집회소, 일본은행 본점, 동경역사 등 공공건물에서 부터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계하였다.

박물관 기능에 맞춰짐으로 내부공간 구성이 원형을 상실하고 있다.

#### 1)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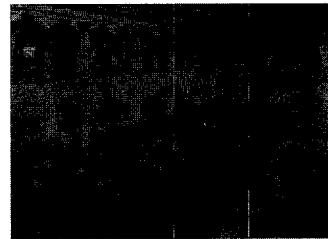
<그림 7> 조선은행 1층 평면



<그림 8> 조선은행 건물 단면

조선은행은 2개의 동(棟)으로 본관과 동관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평면은 우물 정(井)자 모양이고 1층 중앙은 약529m<sup>2</sup>의 객장이 설치되고, 본관의 반 지하층에 금고, 창고, 식당 등이 있고, 1층에 영업장, 객장, 응접실, 도서실이 구성되어 있다. 2층에는 귀빈실, 총재실, 회의실 등 관리 감독에 필요한 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의 객장과 영업장의 배치는 카운터를 중앙에 ㄷ자형 배치로 구성되어 분업방식에 의한 라인결재제도를 운영함을 볼 수 있고, 창구 직원과 창구 직원을 관리하는 후방 결재 조직에 따라 가구배치가 되어있다. 응접실은 전면 출입구 좌우에 배치하여 면담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 그리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영업국, 왼쪽에 국고국이 배치된 것은 업무상의 위계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무의 순서에 따라 상부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의 기능 효율성을 위해 업무 중심에 출납국이 계획된 공간적 고려를 볼 수 있다.

####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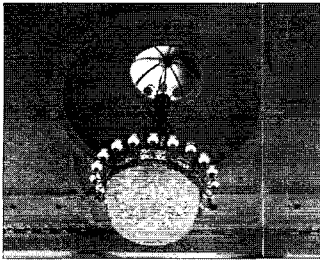
<그림 9> 조선은행 영업장



<그림 10> 1958년 한국은행 준공식

조선은행 실내공간은 각실 기능과 성격에 따른 평면 구성체계에 의한 구조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객장에서 보는 2층의 쌍아치 형태와 주두 등의 장식과 난간의 석재동자의 형태 등은 단순하면서도 부(富)가 나타날 수 있는 장식적이고 고급감을 주는 마감재이다. ㄷ자형의 영업장 카운터위에 설치된 스크린(철창)의 디자인은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영업장과 객장의 개방감을 위해 보이드(Void)된 천장에 설치된 육중한 샹들리에(Chandelier)의 설치는 영업장과 객장의 품위를 더 높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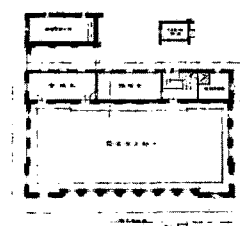
15)한국은행 본관 수리보고서, 한국은행, 1989. pp.5-12



<그림 11> 조선은행 상들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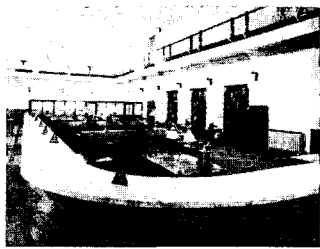
<그림 12> 중앙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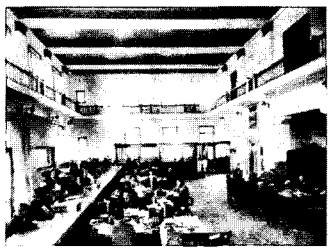
<그림 16> 안동현지점 2층평면

(void)시키고 후면에 회의실, 예비실, 교환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원산지점은 지상 2.5층(1층 127평, 2층 55평, 중 2층 12평, 옥상 2평, 연 196평) 규모로 안동현지점과 같은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청진지점은 지상 2.5층(1층 144평, 2층 75평, 중2층 14평, 옥상 3평)으로 다른지점의 공간구성보다 특이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대지조건으로 인해 가로방향으로 긴 평면 형태로 출입구에서 우측에 금고 및 지배인실이 구성되어 있고, 2층에 응접실과 회의실이 배치되어 있다.

2) 실내디자인



<그림 17> 조선은행 안동현지점 영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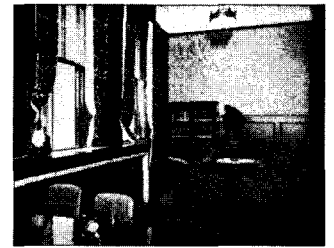


<그림 18> 조선은행 원산지점 영업장

안동현지점의 실내는 객장과 영업장의 카운터는 L자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층 영업장 및 객장의 상부를 지붕층까지 보이드(void)시켜 개방감을 주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은 다른 지점의 형태와 동일하다. 특히 이 시기의 은행지점의 일반적인 영업장의 배치기준인 책상은 결재라인을 따라 수평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왼쪽 일부를 스크린(철창)이 설치되어 있다. 2층의 보이드된 공간의 복도측에 긴창문을 아치로 장식하여, 2층 천정 부분의 격자문양의 패턴과 은행의 의장적 요소를 활용하여 근대적인 건물의 실내공간을 만들고 있다. 채광과 실내를 가급적 밝게 하기 위해 대형 측면창을 도입하여 3면에 배치하므로써 내부의 조도를 높이려 하였다. 2층 복도 부분의 천정에 장식 주두를 설치하고 조명등을 설치하여 실내분위기를 정돈하고 있다. 벽천정의 재료들은 지배인실, 응접실 등은 벽지를 사용하고 천정은 석면석고판을 붙이고 석고몰딩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금박을 입혀 사용하였다. 또한 회의실 및 중요실의 벽에는 목판(木板)을 붙이고 바닥은 몰탈위에 「리노늄 고무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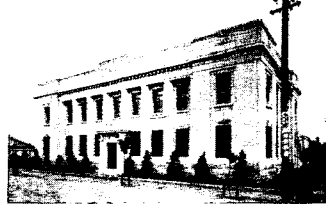
<그림 19> 조선은행 청진지점 영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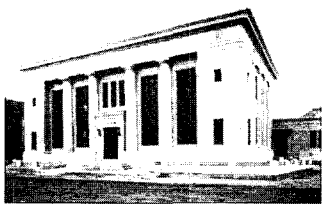
<그림 20> 조선은행 청진지점 응접실

있다. 영업장의 책상 배치는 결재라인을 따라 수평으로 길게 배치되고 있다. 이는 세키네 요라로(關根要太郎)의 「銀行 平面計劃」(1936년)에서 책상배치의 중심간격은 3m, 폭은 1m를 기준으로 한것과 스크린(철창)이 설치된 카운터의 스크린 기둥간격이 1.5m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행 내부공간은 철골, 철근콘크리트 등의 근대적인 구조재료와 적재, 벽돌 등의 고전적인 재료가 절충되어 사용되었음을 실내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실내·외가 유럽 성관풍(城館風)의 르네상스양식을 띠고 있다. <그림 10>은 1958년에 한국 전쟁 때 폭격 등으로 내부가 파괴된 것을 복구한 준공식 때의 모습으로 실내모습이 많이 왜곡되었으나 1989년에 다시 원형으로 복원되었다.

(1) 조선은행 안동현(安東縣)·원산(元山)·청진(淸津)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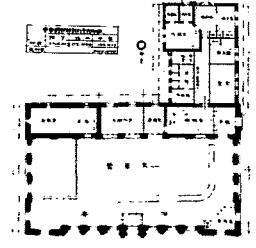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은행 안동현 지점



<그림 14> 조선은행 원산지점

조선은행 지점들의 실내공간계획은 동일한 은행으로서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디자인의 경향도 르네상스양식 외에도 다양한 모더니즘 모티브를 채용하고 독창적인 외관과 실내공간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1924년 7월에 준공한 조선은행 안동현지점, 1936년 11월에 준공한 원산지점, 1938년 8월에 준공한 청진지점과 군산지점, 대구지점 등 많은 지점들을 조선은행 영선계에서 설계하고 청수조경성지점(淸水京京城支店)에서 시공하였다.

1) 공간 구성



<그림 15> 안동현지점 1층평면

안동현지점은 지상 2층(1층 198평, 2층 82평)으로 1층에 객장, 영업장 후면에 금고와 지배인실을 중앙에 대칭으로, 접대실(接待室)은 객장에 근접하여 배치하고, 건물 후면에 식당 및 관리실 등이 구성되어 있다. 2층에는 영업장의 상부를 보이드



<그림 21> 청진지점 회의실

붙였다.<sup>16)</sup> 원산지점의 실내는 객장과 영업장의 카운터는 S자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동현지점과 같이 1층 영업장과 객장의 상부를 오픈시켜 개방감을 주고 원산지점과 유사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단지 천정의 패턴과 창문의 형태가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재료는 바닥에 타일을 붙이고 부분적으로 인조석 물갈리 벽과 천정은 칠마감으로 되어 있다.<sup>17)</sup> 청진지점의 실내는 객장과 영업장을 S자형으로 구획되어 있어 지점으로서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영업장과 객장의 형태는 다른 지점과 같이 2층까지 오픈을 시켜 개방감을 주고 벽면과 천정의 디자인이 웅장한 감을 나타내기 위해 격자 천정을 사용하고 있다. 2층의 응접실과 회의실의 실내사진을 살펴보면 격식을 갖추기 위해 창문에 설치된 천 커튼과 가구들은 고급감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응접실의 실내는 1930년대의 미스피시백화점의 3층 응접실과 같은 분위기로 귀빈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재료와 가구들을 사용하였다.

### 3.3.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그림 22> 조선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은 1906년 6월부터 각 지방에 설립된 6개 농공은행(農工銀行)을 1918년에 합병하여 이루어진 은행으로 한국 농업과 산업과 발전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선총독부산하에 금융기관을 돕으로써 상공업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아 일본인들이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up>18)</sup> 이 은행은 1920년, 30년대에 활발한 영업을 하였지만 해방과 함께 일본의 자본도입이 소멸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업무를 수행치 못해 1954년에 한국산업은행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조선식산은행은 1907년에 건립하고 1923년에 <그림 22>처럼 증축



<그림 23> 조선식산은행본점 영업장



<그림 24> 조선식산은행본점 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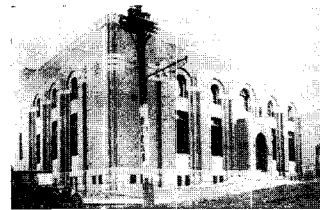
16)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925, p.4

17)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6집 1호, 1937,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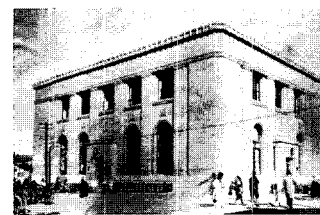
18) 문화재청, 구산업은행 대전지점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5, p.28

하였다. 이 건물은 롯데에 매각하여 철거하고 그 자리에 롯데백화점이 지어졌다. 조선식산은행의 유구(遺構)로는 대구지점, 대전지점이 있고, 조선식산은행 지점들의 실내 공간자료가 남아있는 평양지점, 대구지점, 부산지점, 대전지점 등을 중심으로 실내공간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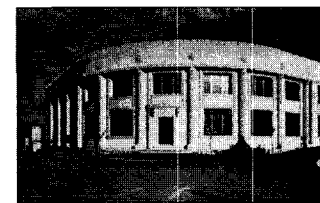
#### (1) 조선식산은행 부산·대구·대전·평양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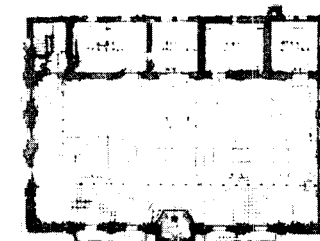
<그림 25>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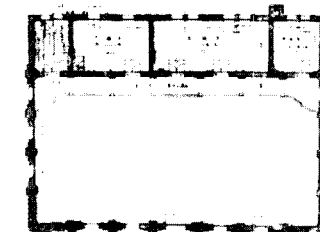
<그림 26>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그림 27> 조선식산은행 평양지점



<그림 28>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 1층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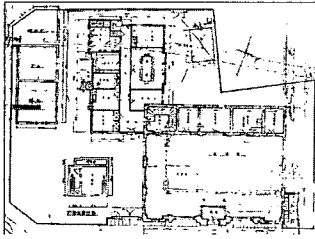
<그림 29>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 2층평면

조선식산은행의 부산지점은 1924년, 대구지점은 1931년에 준공되어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다. 대전지점은 1937년에 건축된 건물로 건물주인 산업은행측이 2층으로 증축하였다.<sup>19)</sup> 평양지점은 1938년에 본관 499평, 별관 170평의 규모로 본관 지상 2층, 별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건축되었다. 이러한 지점들은 조선식산은행 영선계에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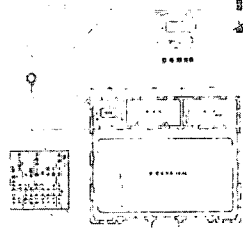
#### 1) 공간구성

조선식산은행의 부산, 대구, 대전지점은 정면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 형태로 1층에 영업장, 지점장실, 금고실, 접대실, 계단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예비실과 회의실이 구성되어 있다. 조선식산은행의 영선계가 지점을 설계하고 감리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은행의 내부 평면은 비슷하게 구성되어져 있으며, 부산지점과 대전지점은 영업장의 상부를 오픈시켜 후면복도에 실들을 배치하였다. 평양지점의 경우는 독창적인 곡면의 관과 부속동을 연결시켜 간부식당, 직원식당 등의 내부 시설규모가 있는 평면을 구현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곡면 형태의 내부공간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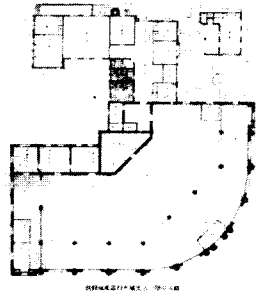
19) 박대준·주남철, 우리나라 은행건축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2호(통권160호), 2002,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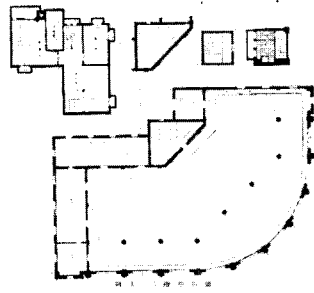
<그림 30> 대전지점 1층 평면



<그림 31> 대전지점 2층 평면



<그림 32> 평양지점 1층 평면



<그림 33> 평양지점 2층 평면



<그림 37>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영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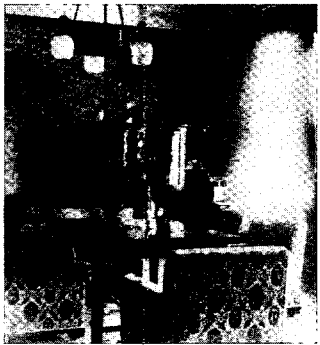
<그림 38>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계단실

후면에 부속실들이 위치하여 공공청사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점장실과 제1응접실과 제2응접실들은 바닥에 부분 카펫을 설치하는 등 고급감을 연출하고 있다.

## 2) 실내디자인



<그림 34>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 영업장



<그림 35>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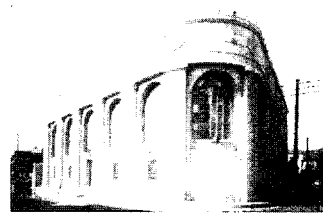
<그림 36> 조선식산은행 평양지점 영업장

<그림 34>는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의 실내로 객장과 영업장 카운터는 L자형으로서 구분되어지고 객장과 영업장의 천정을 오픈시켜 개방감을 주도록 한 계획은 다른 은행의 형태와 동일하다.

카운터에 설치된 스크린(철창)의 패턴이 객장과 영업장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하고 있다. 응접실의 실내디자인은 부(富)를 표현하기 위해 고급천을 사용하여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대구지점은 실내의 객장과 영업장의 카운터는 기둥에 L자형으로 설치하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1층 객장의 층고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이드없이 높은 천정고를 확보하였다. 기둥과 보에 석고몰드로 장식을 첨부하고 천정은 격자 패턴을 사용하여 중후함을 표현하고 있다. 바닥 마감

재료는 인조석 물갈기와 주요실 지점장실, 응접실에는 후로링을 사용하고, 벽에는 오크재와 백색라카 도장을 사용하였다.<sup>20)</sup> 평양지점의 객장과 영업실의 실내는 1, 2층이 개방되어 있고

## 3.4. 제18은행(第18銀行) 부산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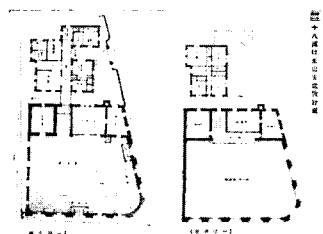


<그림 39> 제18은행 부산지점

제18은행은 일본의 장기(長崎)에 근거지를 두고 1890년에 인천지점을 설립하고 이후에 부산, 원산, 목포, 군산, 나주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 은행은 일인(日人)상인들의 수출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

된 은행으로 1927년에 제18은행 부산지점이 건립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본관 지상3층(1층 116평, 2층 116평, 3층 13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되었다.

### (1) 공간구성



<그림 40> 제18은행 부산지점 평면

제18은행 부산지점의 1층 실내공간 배치는 지점장실을 우측으로 배치하고 좌측에 금고를 두어 금고의 문이 객장을 향하도록 개방되어 계획되어 있다. 객장과 영업장의 비율은 부산지점에서는 2/3가 영업장, 1/3의 면적은 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1)</sup> 특히 고객의 동선과 직원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주출입구는 고객용으로 하고 부출입구는 후면에 배치시켜 행원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다.

2층에는 객장과 영업장은 보이드(void)시키고 후면에 회의실, 응접실, 예비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부속용에는 식당, 화장실,

20)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925, p.27

21)박대준·주남철, 전제서, p.173



서고, 당직실, 기계실 등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다.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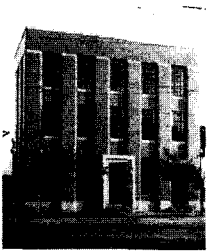


<그림 41> 제18은행 부산지점 영업장

제18은행의 실내는 객장과 영업장 구분은 L자형 카운터로 구분되어 있다. 객장과 영업장 상부가 오픈되어 개방감을 주도록 계획되어 있다. 특히 오픈된 객장의 상부 천정의 패턴이 팔각형의 거북모양의 패턴

을 연속시켜 대형 창문 상부의 반원형태의 아치와 대비시켜 웅장하고 규모있는 객장과 영업장을 구성하고 있다. 영업장의 책상 배열은 결재라인을 따라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카운터 위에 스크린(철창)을 설치하고 있다. 객장과 영업장의 채광을 고려하여 2층까지의 대형 창문을 설치하여 실내의 조도를 높이고 있다. 창문 반원형 곡면창 위에 코니스를 설치하여 중후함을 나타내고 창문과 창문사이에는 인공조명등을 설치하여 천장과 벽면의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 특히 객장의 1층 높이 만큼 대리석 테두리를 두어 높은 천정고를 분할하는 느낌을 주어 안정감을 갖도록 벽면 재료를 분절하여 사용하고 있다.

3.5. 동일은행(東一銀行)남대문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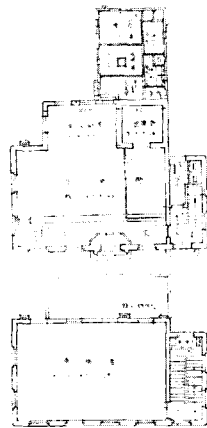


<그림 42> 동일은행 남대문지점

조선총독부는 일본자본을 거절하던 한일은행과 호서(湖西)은행과의 합병을 강요하였으며, 1931년에 두 은행이 합병되면서 동일은행으로 개칭하였다. 합병 후에 동일은행은 다시 한성은행에 강제 통합되었다. 동일은행은 1924년 남대문에 본점을 건립하였다.<sup>22)</sup> 그 후 1931년에 한국인이 설계한 최초의 동일은행 남대문지점이 설계되어 건립되었다. 이는 외형적으로나 규모면에서도 일본인계가 설계한 타 은행지점들과 함께 수준급에 속하는 건물이다.

(1)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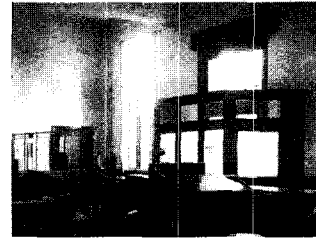
동일은행 남대문지점의 1층 공간구성은 객장, 영업장을 1/3 구성으로 배치하고 후면에 지배인실, 금고를 설치하고 지배인실을 통해 부속실로 식당 등을 배치시켰다. 이는 은행 부속동을 건물에 직접 연결시켜 행원들의 동선을 짧게 하고, 고객전용 화장실을 객장내에 계단실



<그림 43> 동일은행 남대문지점 평면도

밑에 설치하여 고객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볼 수 있다. 특히 금고의 위치와 동선에 대한 배려와 은행계획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설계다. 2, 3층에는 사무실을 우측계단실에 연결시켜 독립적인 사무실로 구획하고 있다.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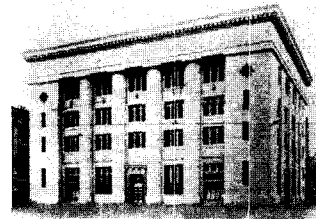
<그림 44> 동일은행 남대문지점 영업장

객장과 영업장은 L자형 카운터로 구획하고, 오른쪽 카운터 일부분을 스크린으로 처리하여 금고와 연결시킨 계획은 동선의 단순화와 모던한 느낌을 준다.

실내의 분위기는 간결하고, 평면계획에서 지점장실 등은 폐쇄적인 계획을 개방시켜 고객과의 친밀성을 주기 위해 진보적인 사고에서 출발된 계획이다. 이러한 개방적인 평면이 지금의 은행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실내디자인에 사용된 요소들은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고, 심플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3.6. 조선저축은행(朝鮮貯蓄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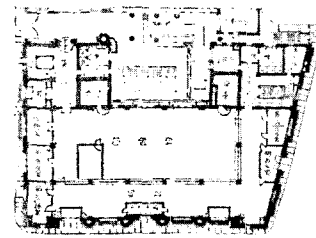
조선저축은행은 1929년 7월 창업하여 조선식산은행본점에 저축은행의 본점을 설치하여 1933년 12월(현. 충무로1가) 현 본점건물로 신축 이전하였다.<sup>23)</sup> 그 후 1950년 5월에 조선저축은행의 상호를 한국저축은행으로 개칭하고, 다시 1958년 12



<그림 45> 조선저축은행(제일은행)

월에 제일은행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조선저축은행은 현상설계에 의해서 동경출신의 건축가 히라바야시킵코(平林舎罇)의 안이 채택되어 1930년대의 보기 드문 네오바로크(Neo Baroque)풍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1) 공간구성



<그림 46> 조선저축은행 1층 평면

조선저축은행의 공간구성은 1층에 객장, 영업장, 금고 그리고 사무실, 5개의 응접실이 배치되어 있고, 좌우양측으로 중 2층의 공간에 서고, 사무실 등이 배치되었다. 2층은 은행의 핵심부로 비서실, 수석응접실, 직원실, 귀빈실과 사무실이 있고, 3층은 대부분이 사무실이고 중앙부에 외근직원들을 위한

22)박대준·주남철, 전계서, p.182

23)제일은행, 제일은행40년사, 1969, p.5



100여 평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4층은 중앙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고, 무대, 강연, 영화촬영과 기타의 행사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5층에는 제1, 제2 식당이 있어 손님과 일반직원의 식사공간으로 사용되며, 특이한 것은 대부분 공간은 옥상정원이 되어 남산의 조선신궁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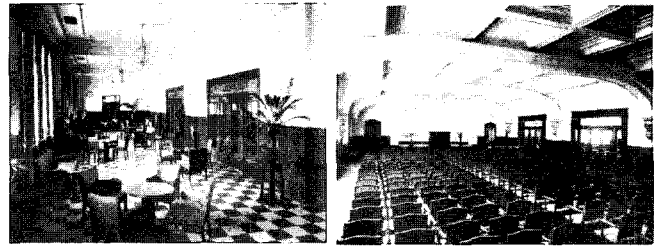


<그림 47> 조선저축은행 1층 영업장 <그림 48> 조선저축은행 2층 행장실

평면에서 객장과 영업장은 L자형 카운터를 기둥과 기둥 중심으로 구획되어 카운터 위에 스크린(철창)을 설치하여 스크린 자체의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장식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중요한 공간인 영업장은 건물의 주체가 되는 부분으로 정면 현관의 입구는 빛나무와 브론즈를 사용하고 내부의 바람막이 스크린(방풍스크린), 감정대의 창구 금붙이, 전등 기구 등은 모두 은백색으로 사용되었다. 내부의 천정은 전부 꽃무늬 격자 천정을 사용하였고, 바닥과 벽체에는 한국산 화강암의 물갈기 마감으로 사용하여 근대적 색채의 풍부하고 명쾌한 영업장 분위기를 표현하였다.」<sup>24)</sup> 각층의 사무실은 백운석(白雲石)의 흰색 벽체로 되어있고 보통 일반사무실 공간과 다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색채가 담백하고 명랑한 근대적 색상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25)</sup> 中村誠씨가 조선과 건축에 기술되어 있는 「조선저축은행의 신축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표현되어진 실내공간 전체의 분위기는 색채가 담백하고 명랑한 근대적 색상을 사용하여 명쾌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직원실 및 귀빈실은 티크목, 빛나무, 떡갈나무 등의 견고한 징두리벽을 설치하고 벽체 단자에는 벽지를 붙여 전체 색채 조화를 시도하고 각방의 용도에 맞는 품위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5층 식당은 직원들이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기분전



<그림 49> 조선저축은행 역원실(役員室) <그림 50> 조선저축은행 귀빈실



<그림 51> 조선저축은행 4층 담화실 <그림 52> 조선저축은행 4층 대회의실

환을 할 수 있도록 지붕위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는 기분을 만들기 위하여 식당 공간이 남산을 향한 벽면 전부를 오픈시켰다.



<그림 53> 조선저축은행 4층 제2회의실 <그림 54> 조선저축은행 행장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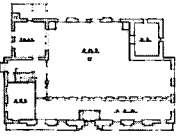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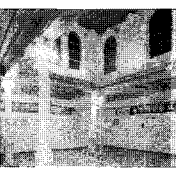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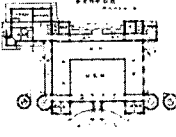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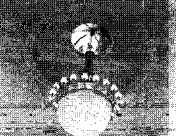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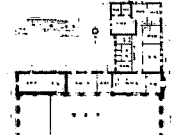



#### 4. 근대은행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표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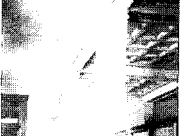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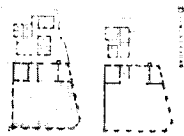






근대적 은행건축이 출현되었던 일제 식민지를 근간으로 조선은행(1911년), 조선식산은행(1928년) 한국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진 동일은행 남대문지점(1931년), 조선저축은행(1935년)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본점 건물의 실내공간과 규모가 작은 지점들의 실내공간을 수집된 자료에 의해 표현 특성을 찾아보면 당시 1910년-1930년 초 일본에서 전통적 서양고전의 틀을 깨기 시작한 시기의 표현과들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제양식 건축설계수법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내공간 계획과 실내디자인의 기법도 장식이 첨가되고 미적으로는 부를 나타내기 위한 과다한 장식, 낭만적 유행의 혼돈된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장식위주의 실내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점은 다른 상업건축물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 진다. 사례에 나타난 근대 은행의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4)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제15집1호, 1936. p.25

25) 朝鮮と建築, 전게서, p.26

<표 1> 근대은행 실내공간의 표현특성

구분	실내공간 표현특성		
<p>제일은행</p>  <p>부산지점</p>	<p>공간 형태 표현</p>	<p>영업장과 객장은 일자형(一字型) 카운터로 구획하고 고객 신뢰감 확보 차원의 대칭적 배치 형태 표현. 은행의 초기 계획 방법을 구축함.</p>	 <p>부산지점 1층 평면</p>
<p>인천지점</p> <p>1897.8 - 1910</p> <p>출처: 清水建設</p>	<p>요소 디자인</p>	<p>내벽은 회색 마감, 모자이크 타일 위에 회색 페인트 마감. 천정은 쪽널을 붙여 단순 명료함을 나타냄.</p>	 <p>인천지점</p> <p>출처: 清水建設</p>
<p>표현 특성</p>	<p>실용성과 기능성을 나타내고 단순하고 대칭적 표현 경향을 나타냄.</p>	 <p>1층 평면</p>	<p>출처: 清水建設</p>
<p>조선은행</p> <p>1907 - 현재</p>	<p>공간 형태 표현</p>	<p>업무상의 위계성을 나타내고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형의 카운터를 설치함. 문업방식을 위해 층별 공간형태가 명확하고 유럽 성관풍(城館風)을 나타냄.</p>	 <p>1층 평면</p>
<p>표현 특성</p>	<p>실내외가 유럽 성관풍(城館風)의 르네상스 양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p>	 <p>1층 평면</p>	<p>출처: 朝鮮公論社</p>
<p>조선은행</p> <p>안동현지점</p>	<p>공간 형태 표현</p>	<p>일자형 카운터로 객장과 영업장을 구분하고 객장 상부를 오픈시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p>	 <p>안동현지점 1층 평면</p>
<p>표현 특성</p>	<p>영업장 및 객장 공간에 부분적 장식을 사용하지만 모던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절충적 양식을 채택하고 있음.</p>	 <p>안동현지점 영업장</p>	<p>출처: 朝鮮公論社</p>
<p>원산지점</p> <p>1924. 7 1936. 11 1938. 8 - 현재</p>	<p>요소 디자인</p>	<p>천장의 격자문양 및 패턴디자인을 이용해 의장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조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측면창을 이용하고 벽부 조명등을 이용하고 있음.</p>	 <p>원산지점 영업장</p>
<p>표현 특성</p>	<p>영업장 및 객장 공간에 부분적 장식을 사용하지만 모던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절충적 양식을 채택하고 있음.</p>	 <p>청진지점 영업장</p>	<p>출처: 朝鮮と建築</p>

<p>조선식산은행</p> <p>부산지점</p>	<p>공간 형태 표현</p>	<p>객장과 영업장 카운터는 L자형으로 구분되고 부산, 대구, 대전지점 등은 좌우대칭 형태로 객장, 영업장을 오픈시키고, 개방감을 표현하나, 평양지점은 독창적인 곡면형태의 내부 공간을 만들고 있음.</p>	 <p>부산지점 영업장</p>
<p>대구지점</p> <p>평양지점</p> <p>1918 1924 1931 1937 - 현재</p>	<p>요소 디자인</p>	<p>기둥과 보에 석고몰드로 장식을 첨부하고 천정의 격자 패턴을 이용하여 섬세함을 표현하고 있음.</p>	 <p>대구지점 영업장</p>
<p>표현 특성</p>	<p>공공청사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부(富)를 나타내기 위해 절충주의적 표현을 사용함.</p>	 <p>평양지점 영업장</p>	<p>출처: 朝鮮と建築</p>
<p>제18은행</p> <p>부산지점</p> <p>1927</p>	<p>공간 형태 표현</p>	<p>오픈된 객장의 상부천정, 대형 창문 설치로 반원형태의 아치창과 대비시켜 규모있는 객장과 영업장 형태를 표현하고 있음.</p>	 <p>1,2층 평면</p>
<p>표현 특성</p>	<p>실용성과 기능성을 표현하고 대칭성을 나타내고 단순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p>	 <p>부산지점 영업장</p>	<p>출처: 朝鮮と建築</p>
<p>동일은행</p> <p>남대문지점</p> <p>1924</p>	<p>공간 형태 표현</p>	<p>객장과 영업장을 -자형 카운터로 구획하고 단순한 공간형태를 표현.</p>	 <p>영업장</p>
<p>표현 특성</p>	<p>개방적 평면형태로 솔직한 표현과 모던한 느낌을 표현함.</p>	 <p>영업장</p>	
<p>조선저축은행본점</p> <p>1933 - 현재</p>	<p>공간 형태 표현</p>	<p>객장과 영업실의 구획은 일자형 카운터를 열주를 통해 구현하고, 천장의 격자형상으로 공간감을 표현.</p>	 <p>영업장</p>
<p>표현 특성</p>	<p>근대적 색채의 풍부하고 명쾌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담백한 색상연출에 꽃무늬의 격자 천장디자인으로 부(富)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사용.</p>	 <p>행장실</p>	
<p>표현 특성</p>	<p>근대 절충주의 표현경향과 요소디자인에 많은 문양을 가미하여 근대주의적 경향을 나타냄.</p>	 <p>4층 대회의실</p>	

## 5. 결론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근대은행의 태동과 사례조사를 통해 은행 실내공간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고 각각의 은행 실내공간에 나타난 실내 공간구성을 파악하여 실내 공간표현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근대은행의 태동은 1878년에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근대적 금융기관으로 알려진 일본제일국립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여 침략야욕과 함께 일본계 은행의 진출이 우리나라에 근대적 금융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일본의 은행 건축공간을 그대로 적수입하여 부산, 인천 등 주요 개항지에 건축하였다.

평면은 간단하게 계획하고 2층 이하의 건물로 1층 위주의 공간을 편성하고 객장과 영업장의 구획은 一자형 ㄴ자형의 카운터로 구획하고 1, 2층을 개방하여 공간감을 갖게 계획되었다. 실내 분위기를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측면 창문을 크게 두어 자연광을 충분히 받도록 계획하였다. 은행의 설계는 일인(日人)건축가와 총독부의 관조직 또는 은행소속의 설계조직이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정형화된 계획안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영업장과 객장의 배치가 정형화되었음을 보고 알 수 있다. 공간구성은 1층의 영업장의 후면에 일반적인 배치로 금고와 지배인실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객장에 인접하여 접대실을 배치시키고, 2층에는 예비실을 두어 용도에 따라 서류보관실, 사무실로 서고, 회의실을 두는 것이 상식적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은행 계획에서도 고려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각 은행 본점의 경우, 상층부에 식당, 대강당 등 휴식문화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현재의 금융기관이 문화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근대은행의 실내공간들은 근대화를 지향하면서도 충분히 그 시대의 대한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양풍스타일이 지배적이고 많은 양식이 공존하는 절충주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시기의 실내공간의 디자인적 특성은 은행에 대한 신뢰감을 위해 적당히 장식에 가미하고 고급소재로 내·외부를 표현하여 부(富)를 표현 하고자 했다. 1910년-1930년 초 일본에서 전통적 서양고전의 틀을 깨기 시작한 시기의 표현과들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제양식 건축설계수법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내 공간계획과 실내디자인의 기법도 장식이 첨가되고 미적으로는 부를 나타내기 위한 과다한 장식, 낭만적 유행의 혼돈된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장식위주의 실내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점은 다른 상업건축물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러나 평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정형화하여 간단하게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올바른 실내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업건축물에 나타나는 실내공간의 표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실내디자인사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영훈외 4인, 한국의 은행 100년사, 도서출판 산하, 2004
2. 강대화, 은행 건축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환경대학원 석논, 1996
3. 박대준, 한국상업은행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4. 박대준·주남철, 우리나라 은행건축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2호(통권160호), 2002
5.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서 양식변화, 연대 박논, 1999
6. 장기돈, 식민지조선에서 근대적 금융기관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 박논, 1997
7. 장대용, 일제강점기남대문로 일대의 백화점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원 석논
8. 丁碩炫, 조선은행건축의 내외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 2005
9.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922.6 - 1942.12
10. 이안, (구)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복원공사를 통해서 본 근대건축 보존의 문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2001. 5
11. 本田季夫, 朝鮮殖産銀行20年誌, 1938
12. 제일은행, 제일은행 40년사, 1969
13. 조흥은행, 조흥은행 100년사
1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25년사, 1935
15. 조선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10년사, 1928. 10
16. 대림산업주식회사, 한국은행본관리모델링, 1989
17. 문화재청, 구산업은행 대전지점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5.12
18. 제일은행, 제일은행 구본관 실측 및 개축 시공보고서, 1994
19. 한국은행, 한국은행본관 수리보고서, 1989

<2007. 4. 30>